

내전 재발 우려 ‘망각 협정’ ... 진상규명 없는 과거사 청산 한계



국내외 과거사 정리로 본

5·18의 과제

〈9〉스페인 ‘망각과 기억’

스페인 = 글 김용희·사진 김진수 기자

그동안 망각 방침을 취한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방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서야 스페인은 ‘유럽의 마지막 파시스트’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 전 총리의 흔적 지우기를 놓고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스페인 전역에 놓여 있던 프랑코 동상을 철거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프랑코의 주검을 마드리드 인근 ‘전몰자 계곡’에서 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의회는 스페인 내전의 주역인 프랑코 전 총리의 주검이 내전 희생자들과 함께 묻혀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장을 추진했었다.

6월에 출범한 진보 성향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사회당 내각은 프랑코의 주검을 ‘전몰자 계곡’에서 발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찬성 176표, 반대 2표, 기권 165표로 통과됐다. 사회당(PSOE) 등 좌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을 주도했지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투표 자체를 거부한 우파 정당의 표가 48.1%에 달할 만큼 논쟁이 됐다.

프랑코 전 총리의 후손들 또한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사망한 지 40년이 지난 현재 이장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또다시 헤집는다는 명목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 올 연말까지 이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철권 통치자 프랑코=1892년 12월 4일 군인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코 전 총리는 육군 보병 사관학교에 입학하며 군인의 길을 걸었다. 스페인과 모로코가 벌인 리프 전쟁에 참전하며 전쟁영웅으로 부상했고 34살의 나이에 스페인 최연소 장성이 된다. 당시 미국과 벌인 미서전쟁으로 식민지 대부분을 잃은 스페인은 모로코에 사할을 걸었고 모로코 파견군을 장악한 프랑코는 자연스레 입지가 커진 것이다.

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스페인 왕가의 알폰소 13세는 경제 불황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며 제2공화정이 수립된다. 이때부터 시작된 좌우 대립은 결국 4년 후인 1936년 7월18일 프랑코 등 우파 ‘국민 진영’(Bando Nacional)이 반란을 일

프랑코 독재정권에 희생된 국민

내전 100만명·정치탄압 20만명

희생자 보상·화합에 ‘무게’

민간인 집단학살지 조사도 못해

진보 정권 들어선 최근에는

프랑코 동상 철거 등 흔적 지우기

으키며 내전을 불러왔고 1939년 수도 마드리드를 함락하며 반군의 승리로 끝났다.

2차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프랑코는 표면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사정을 핑계로 전면적인 참전은 하지 않았고 2차세계이 끝날 때 즈음에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연합군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집권한 프랑코는 1975년 사망할 때까지 독재정권을 펼친다. 100만명의 희생자를 낸 내전을 제외하고라도 이 기간 프랑코 정권에 의한 희생자만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군인 시절과는 다르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이며 스페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또 철저한 반공주의, 중앙집권주의를 유지하며 반대파를 숙청했다. 카탈루냐, 바스크 등 정권에 저항하는 지역에 대한 탄압도 심했다. 현재의 북한처럼 스페인 국민들의 해외 탈출을 법적으로 막았고 발각되면 엄벌에 처했다.

그의 탄압은 학계와 예술계도 피해가지 못했다. 당시 스페인 대표 시인집단인 ‘27세대’라 불렸던 미겔 에르난데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는 감옥에 갇혀 생을 마쳤고 페드로 살리나스, 후안 라몬 히메네즈는 망명한 후 귀국하지 못했다. 이때 스페인을 떠나 중남미 등으로 도망쳤던 시인, 극작가, 학자 등은 망명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망각협정=프랑코가 사망한 이후 스페인이 취한 태도는 망각이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대한 규모 앞에서 스페인의 좌파와 우파는 1977년 ‘국민들의 완전한 형제적 공존’을 이유로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이른바 ‘망각협정’(Pacto de Olvido)을 체결한다.

당시 스페인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지식수준이 높아지며 대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프랑코가 사망했다더라도 그의 세력은 여전히 국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었다. 프랑코 정권의 후신인 국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기존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로 이행하되 프랑코 세력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처벌을 묻지 않는 망각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대다수의 스페인 국민이 동의한 배경에는 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내전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내전 때 겪었던 고통이 망각 협정을 묵인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측에서는 단지 정치범들의 사면만 요구할 뿐이었다.

하지만 망각 협정으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 전역에 걸쳐 있는 암매장, 공개 처형 장소 발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내전에서 승리한 1936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스페인 독재정권을 펼친 프란시스코 프랑코(오른쪽) 전 총리. 프랑코 사후 스페인 정부는 망각협정을 통해 이념 대립을 막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며 과거사 청산 작업이 다시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에서 발굴된 내전 희생자들. 스페인 내전으로 최대 10만명이 암매장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전과 독재 정권의 피해자들은 보상 받지 못했다.

◇역사기억법=결론로는 평화와 공존의 길을 걷고 있던 스페인에서는 2000년대 들어 과거사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다. 지난 2002년 좌파정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 페롤에서 광장에 서있던 프랑코 기마동상을 박물관으

로 옮긴 것을 계기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페롤은 프랑코의 출생지로 우파들에겐 성지와 같은 곳이다.

2004년 5월 프랑코제단에 매년 지원하던 연간 15만 유로의 지원금을 폐지한 데 이어 9월에는 ‘프랑코 정권과 내전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범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2006년을 ‘기억의 해’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제2공화정 수립 75주년을 맞아 2006년 6월 스페인 의회는 2006년을 ‘기억의 해’로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에는 과거사 청산작업의 핵심인 ‘역사 기억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집단 매장지 발굴이다. 내전 실종자는 최대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당시까지 발굴된 유해는 500구 뿐이었다. 법안은 유해 발굴 작업을 민간부문에서 진행하도록 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프랑코 정권의 기념조형물은 철거하도록 했다.

가장 대표적인 내전 기념조형물인 ‘전몰자의 계곡’에서는 프랑코의 기일에 추도미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정치적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

역사기억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청산작업은 진행 중이다. 프랑코 묘지 이전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스페인 과거사 청산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독일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한 단호한 처벌,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스페인은 희생자 보상을 중심으로 화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주도 학살지 조사, 독재 기간 구속됐던 정치범들의 복권, 전몰자 계곡에 독재정권 역막을 다른 기념물 설치 등이 제안됐지만 모두 거절됐다.

/kimy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풍수 사주 >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시: 2018. 10. 30(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시: 2018. 10. 23(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점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점(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벌링크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벌링크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02-502-8898 | 서울본사

글로벌링크 에듀센터 순천광양국제캠퍼스
총괄: 김민준
상설: 김민준
프리지아: 김민준
조교: 김민준

파격가 임대!! ▶ 권리금 없이 시세로 임대
(전세가능)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약국, 편의점, 안경점 등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포츠학원, 입시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 중 호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1억천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636㎡ 백일홍 꾸지뽕나무 300주 48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본내 4900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5981㎡ 교환가능 7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아파트 서구 능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깨끗함, 리모델링완료 1억7천
- 농성초전내면 월산동 소방도점 대지 129㎡ 주택 66㎡ 은행5천.1억3천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생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저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담양 월산면 가든 땅 1658㎡ 상가주택과 교환원 6억2천
- 강진 신전면 태양광 적합지 30259㎡ 주택있음 6억5천
- 남평읍 평산리 답·전 8461㎡ 공시지가 2억천 투자에 양호 7억7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월산동 양면도로점 주거지 873㎡ 창고와 사무실 11억
- 무안 해제면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동구 용산동 대지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등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화정동 대형아파트 단지 병원적합 땅 258㎡ 5층 새건물 매 34억
- 농성초부근 2차선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판선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잘됨 3억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적합) 매대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대가 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대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 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의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대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 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의 매대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대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대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대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대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대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대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 500㎡ 보증금 2억 월920만원 안집제의 매대가 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 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대가 44억원
- 해남 사찰맞남골포 1300기 토지3만6천㎡ 매대가 8억5천만원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정부공개가) 용자 28억원포함 매대가 35억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